세종대왕 불교음악 직접 작곡

김수온 '사리영응기'에 범패 7 곡명 · 가사 수록 박범훈교수 발견

한글을 창제하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지은 세종대왕이 불교음악인 범패도 직접 작곡했다는 기록이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대 한국음악과 박범훈교수는 예술철학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사리영응기 · 舍利靈應記〉에 세종이 직접 작곡한 범패(梵唄) 7곡의 이름과 가사가 실려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책에는 '친히 새 음악 앙홍자지곡(仰鴻慈之曲) 발대원지곡(發大願之曲) 용선도지곡(隆善道之曲) 묘인연지곡(妙因緣之曲) 포법운지곡(布法雲之曲) 연감로지곡(演甘露之曲) 의정혜지곡(依定慧之曲) 등 7곡을 지으셨으니 그 악장(가사)은 귀삼보(歸三寶) 찬법신(贊法身) 찬보신(贊報身) 찬화신(贊化身) 등 아홉이 있다(…親制新聲仰鴻慈之曲發大願之曲隆善道之曲妙因緣之曲布法雲之曲演甘露之曲依定慧之曲 其樂章則九曰歸三寶贊法身贊報身贊化身…)' 고 기록돼 있다. 이들 7곡의 범패는 세종30년 내불당을 인왕산 자락으로 옮긴 후 거행한 봉안법회에서 연주할 목적으로 작곡된 것이다. 특히 세종의 작곡 동기, 악기편성, 작품명, 가사 등과 함께 한글로 표기된 50여개의 이름이 남아 있어 서지학연구에도 귀중한 자료.

◇박범훈교수

병조정랑 김수온(1410~1481)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세종32년(1450년) 편찬한 〈사리영응기〉는 부처님 사리에 대한 영험기로 궁궐내의 내불당을 인왕산 자락으로 옮겨 짓는 과정과 불상점안법회 · 낙성식을 할 때 불전에서 방광하고 사리탑에서 광채가 찬란한 사리 두 개가 나타나 왕과 함께 경탄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경당 권상로스님에게 자료를 입수한 국학자 안다산이 1930년 〈불교〉지 27호에 일부 소개한 〈사리영응기〉의 내용을 추적하다 내용을 확인하게 됐다"고 밝힌 박범훈교수는 "사리영응기는 세종대왕을 고려의 향악과 불교음악을 재정비해 한국적 불교음악을 창제한 왕으로 재조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리영응기' 원문. 오른쪽에서 넷째줄 중간부터 "또 앙홍자지곡등 새 곡을 직접 만드시니…"라고 쓰여있다.

"강습생들 향학열 대단했죠"

약 력

1926년 강원도 홍천生
1951년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 졸
1961~65년 국어학회 이사장
現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중언어학회 고문, 대장경 파니니연구회 회장

1945년 백양사 한글강습회 자료공개 김민수교수

조선어학회 한글강습회 파견 강사로 1945년 11월12일부터 한달간 백양사에서 머물며 한글을 강의했던 김민수 교수(73). 김교수는 53년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일기장과 강습회 관련 서류 등을 공개하며 당시 백양사에서의 추억도 꺼내 놓았다.

-'한글문화보급회'란 어떤 단체였습니까.

▲해방이후 우리말 교육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1945년 9월부터 조선어학회가 '국어회복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적으로 설치한 한글강습소를 말합니다.

한글강습소는 대체로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각 학교에 개설, 우리글을 자유롭게 배울 수 있다는 기쁨에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백양사처럼 직접 한글강습소 개설을 요청한 것은 일반단체나 타종교와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백양사에서의 한글강습은 어떻게 이뤄졌는지요.

▲11월 27일부터 2주간 오전 9시 30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향적전에서 〈한글맞춤법통일안〉을 기초로 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훈민정음과 표준어 표기법, 한글교수법(敎授法) 등을 가르쳤습니다. 강습생은 고등부와 보통부로 나누어 모두 37명이었는데 강습받는 스님들 중에는 혜화불교전문학교 출신도 있어 교육수준이 높았습니다.

사찰의 교육 · 문화운동 모범보여 "만암스님의 교육열의 기억남아"

-사찰로서 유일하게 한글문화보급에 참여한 백양사 한글강습소 개설이 갖는 의의라면.

▲불자들만을 위한 교육운동이 아닌 전라남도 일대의 한글보급을 위한 사회 · 문화운동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료후 한글강사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강습생들이 해당 지역과 사찰로 돌아가 한글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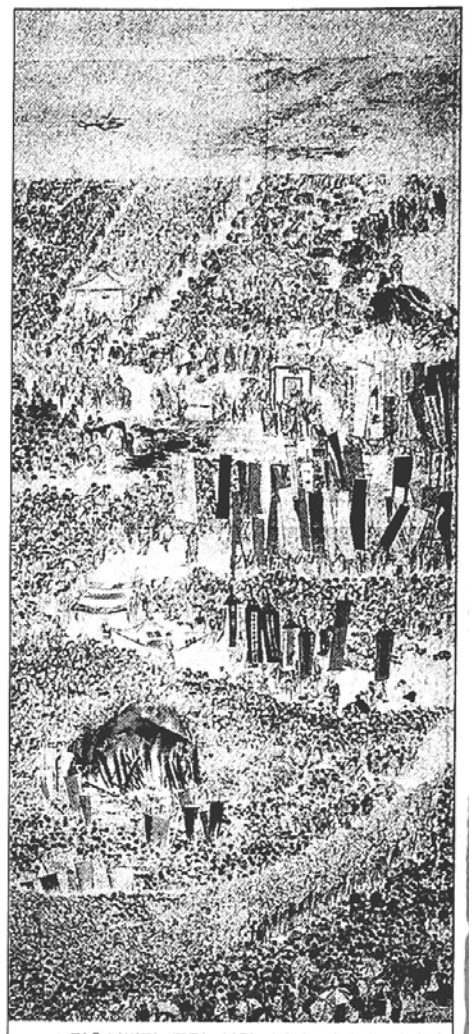
-당시 백양사에서의 생활을 소개해 주십시오.

▲밤마다 대중스님들과 모여앉아 얘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강습생들과 운문암 · 영천암 등을 등산하고 '한글 노래'를 배우며 함께 연극도 구경했었습니다. 특히 주지 만암스님은 70고령에도 늘 꼿꼿한 자세였고 손자뻘되는 제게도 깍듯이 존대를 하셨지요. 말씀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독립과 항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신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이후 백양사에 가보셨습니까.

▲일상사에 쫓겨 그 후 한 번도 가보지 못해 아쉬워요. 조만간 다시 방문해 간직하고 있는 만암스님으로부터 받은 염주와 백양사분회 관련 자료 · 사진 등을 백양사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불교신자'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53년전 백양사에서 맺은 불가(佛家)와의 인연을 항상 가슴속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경파니니연구회 일을 맡아 대장경 한글역경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그때의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파니니문법 연구를 통해 한글역경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미력하나마 불교와의 인연을 잘 회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김호석씨가 그린 성철스님의 다비식 장면. 총 1만여명이 화폭에 들어있다.

그림으로 보는 '성철스님 다비식'

김호석作…동산방화랑서 23일까지

시간대별 구성 1만여 인물 화폭에

국내 인물화의 1인자로 꼽히는 김호석씨(41)가 14일부터 23일까지 인사동 동산방 화랑에서 성철스님 다비식 장면을 그린 대형그림(높이 3.65m, 폭 1.6m)을 전시한다.

성철스님의 열반 5주기를 앞두고 전시되는 '성철스님 다비식' 그림은 시간대별로 다비식을 재구성한 대형 동양화. 맨 윗 부분에는 생전의 성철스님이 해인사에서 백련암을 향해 오르는 모습을, 바로 아래 부분부터 영결식 이후의 장면을 담고 있다. 갖가지 화려한 만장들을 앞세우고 스님의 영정과 법체가 다비식장으로 옮겨지는 긴 행렬이 화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고 바로 밑으로 연화대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5년전 성철스님의 다비식에 참석했을때 큰 스님의 원적을 슬퍼하던 수십만 인파에 깜짝 놀랐다는 작가는 4년간 매일 네사람씩 모두 1만여명의 인물 군상을 한 화폭에 담아놓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 작품과 이를 밑받침한 스케치들이 함께 전시된다. (02)733-6945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종교화합 예술제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각 종교간의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9일 미술제 개막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진다.

미술제는 한국화 서양화 조각 서예 등 1백6점이 27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음악제는 27일 오후 7시 예술의 전당 음악당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테너 박광원 강무림, 소프라노 박미혜 김보경 씨 등이 출연해 '석굴암' 등을, 2부는 3백여명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이 '그리운 금강산' '우정의 노래' 등을 합창한다. 영화제 기간에는 러시아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노스탤지아'(19~23일), 불교영화인 신성일감독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20~24일) 등이 한국영상자료원 시사실에서 상영된다. 학술세미나는 22일 오후 2시 '종교영상예술의 의미와 가치' '현장에서 본 영상과 종교성의 만남' 등을 주제로 열린다.

이경숙 기자

◇9일 종교미술제를 시작으로 음악제, 영화제, 학술세미나 등이 27일까지 예술의전당 등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열린 종교미술제.

불교사원지 하권 발간

조계종 문화부는 전국에 산재한 사지의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자료집인 〈불교사원지〉 하권을 발간했다. 지난해 출간한 〈불교사원지〉 상권에 이어 나온 하권에는 충북지역 234개, 충남(대전)지역 467개, 전북지역 143개, 전남(광주)지역 274개, 제주지역 5개 등 총 1123개의 사지에 대한 연혁 및 현황, 보유 성보문화재, 해당관련문헌, 참고자료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로써 조계종은 상권에서 조사된 934개 사지를 합쳐 2057개의 사지를 정리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진 흥 기 계 공 업 사

농 · 업 · 기 · 계 · 제 · 작 · 전 · 문

대표이사 이 영 무

■ 경남 양산시 어곡동 158번지 유산공단내
TEL : 0523)386-1778~9
FAX : 0523)383-3177

현대불교신문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
우진건설 주식회사

사업종목 : 토목, 건축공사업(사찰시공전문)

대표이사 정 대 부

■ 창원사무실 : 경남 창원시 봉곡동 86-3
TEL : 0551)265-0685~6, 283-8349
FAX : 0551)265-0827

■ 진주사무실 : 경남 진주시 사봉면 무촌리 1132-5
TEL : 0591)758-4552~3 FAX : 0591)758-4553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불사에 동참하여 대법당 준공법회를 갖게 되었음을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